

한국 유행섬유전시회 중국서 개최

대구 및 경상북도 섬유기업들이 6월1-2일 양일간 중국 Guangzhou 특설 전시장에서 열리는 <2010 봄·여름 시즌 한국유행섬유 전시회>에 참가한다.

한국패션센터는 광둥성의류산업협회와 대구경북소재개발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유행섬유 전시회에 세양섬유, 벽진바이오텍 등 16사가 참가한다고 5월26일 발표했다.

2006년부터 매년 봄·여름과 가을·겨울 등 두 시즌에 걸쳐 트렌드를 제안해왔으며 2008년에는 총 1만3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.

시장 관계자들은 “2009년에는 중국 Guangdong의 대학생 패션주간에 맞추어 열리기 때문에 참관객 확보 등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”으로 보고 있다.

한편, 한국패션센터는 현지 바이어, 디자이너 등을 초청해 Stability(안정성)를 주제로 2010년 봄·여름 시즌의 트렌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9/05/27>